

지속적 충만을 누리려면 옛사람을 알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음을 믿어야 함과 같이 우리의 의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 3. 성령 충만과 우리의 의지

먼저 우리 고후 3:17 을 읽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 : 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합니다.

의지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로마서 6:16 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의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고 죄에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된다’ 고 하는 말은 의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중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순종을 하고 싶어도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의지가 오랜동안 죄의 종살이를 하던 타성에 의해, 연약에 싸여 있기 때문입니다<sup>1</sup>.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에 뿌려질 때, 우리의 의지는 죄의 결박을 풀고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말씀과 성령으로 의지는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지는 만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 : 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 4. 지속적 성령 충만한 사역의 원리

이것은 영국 Westminster 교회의 Loyd jones 의 영적 침례에서 제가 받쳐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느니라.( 빌 4:13)**

바울은 생애에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핍박을 받고, 조롱과 멸시에 찬 대우를 받고, 때로는 동료 사역자들에게서 실망을 느끼기도 하며, 가지 가지의 상황속에서 낙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강심장의 소유자인 그를 낙담케 하는 감옥 안에서, 그가

<sup>1</sup>. 박형룡 인죄론 p. 265(A.A. hodge op. cit., pp327, 328)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것이 평화이든지, 전쟁이든지, 자유이든지, 노예 생활이든지, 지금까지 익숙하게 지내오던 삶이든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든지 간에,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바울을 견디게 했던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능력을 얻기에 힘쓰면서 생애의 전시간을 소비하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전혀 그 능력을 소유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길 “이 능력을 소유한 다른 그리스도인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결코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또 “만일 나의 삶속에서 이 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온세상을 다 주어도 좋겠습니다. 이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하며 탄식합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그 능력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얻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점에 있어서의 혼동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나” 만을 강조하는 형(形, sample)입니다.**

**둘째 유형은 “나” 를 말끔히 지운 형입니다 .**

첫째 유형은 자기가 언제나 먼저 나가는 사람입니다.

둘째 유형은 자기는 죽어도 안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머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음성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마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하는 “나” 는 사라진 그런 사람입니다.

“나” 는 말끔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런 두 극단의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혼동의 주원인은 바울이 언급한바 “나” 와 “그 분” 의 바른 위치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정상적 유형은 나와 예수님과의 균형잡힌 관계하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의 형입니다. “나를 능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나와 그리스도 사이의 바른 관계와 그 균형 말입니다<sup>1</sup>.

#### 4.1 바른 관계와 그 균형

100% 자기가 모든 일을 한다 - 틀린 것입니다.

(Without God, but only Myself) - NO

100% 주님이 하신다 - 틀린 것입니다.

(without myself , but Only God,) - NO

50% 주님, 50% 내가 한다 - 틀린 것입니다.

50% God + 50% Myself - NO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이 말안에는 주님도 계시고 나도 있습니다. 주님은 있고, 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나만 있고 주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안에는 주님도 계시고 나도 있습니다.

바른 관계는 100% 주님이, 100% 나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100% 주님의 능력으로 100%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7 : 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 :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구별되는데, 성령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1+1=2 가 아닌, 1+1=1 이 되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교회의 심방 담당 여전도사가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교회의 어떤 환자에게 가서 기도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자에게 심방을 가서 기도해 주라” 이 여전도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환자의 집에 가서 속사람의 능력으로 기도하자 이 환자는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 후 이 여전도사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누구에게 심방 갈 것인지 성령님이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부터는 성령님은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그 후 이 여전도사는 깨달았습니다. Passive 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성령 충만과 인도함을 기다리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매일 그렇게 주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바라며, Positive 하게 자기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기본적 원형은 먼저 “Passive” 입니다. 그리고 난후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positive 하게 사역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다음 구절에서도 먼저 수동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와,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 :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먼저 Passive 하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Receptive 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Positive 하게 나아가야 할 경우에도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곤 성령 충만을 받았읍니다. 집에 갈려고 내려 오는 데 마침 강나루가 있더랍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물위로 걸어 오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물위로 뛰어 들었습니다. 물위로 걸어 갔겠습니까?

이 청년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Receptive!

자기 믿음만 가지고 Positive 하게 나가선 안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역의 원리는 언제나 Passive → Positive, Receptive ▶ Creative 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주님이 계시고, 종인 우리가 있습니다. 지속적 성령 충만의 삶의 원리는 청직이의 삶의 원리 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사람이 열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백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 납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한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5. 재충만

사도행전 9 : 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has sent me so that you may see again an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할 때 성경 충만을 받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그의 사역 도중에 여러 번에 걸쳐 재충만의 경험을 했습니다.

**행 13:9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then Saul, who was also called Pau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사도 바울은 여러번에 걸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어떤 경우에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때때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봉사를 할 경우 그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때마다 때때로 재충만을 받으록 하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봉사를 위하여 특별한 장비를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F. B. Meyer 는 말하되 “너는 네 가족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나 네 강단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을 새로이 받음으로 특별히 장비하는 것을 확실히 하라” 고 했습니다.<sup>4)</sup>

## 6. 지속적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

지속적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자기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되고, 우리가 자신을 향하여 명령을 해야 합니다.

교만 [5-06 Pride, study of.docx](#) ;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한다,

잠언 16 : 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 ↔ 겸손(자기를 비우고 비천한 곳에 둘 줄 알아야 함(빌 2 장))[5-06 Humility, study of.docx](#)
- 겸손의 기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손길 아래 자신을 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의 것이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 함 ;

눅 9: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 하리라.

예수를 부끄러워 전도 못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는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 15 : 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죄악 ;

시 66:18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파괴를 가져온다. 회개는 교제의 회복을 가져오는 방안이다.

요한일서 1 :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 세상을 사랑함;

요한일서 2 :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 :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와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할때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항상 돌아 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위로서는 죄를 안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밖으로는 죄를 안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내부에 숨어서 표를 내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심령을 부패케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 7. 지속적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신약성경에는 성령충만의 지속을 위한 조건들이 세가지 있습니다.

### 1.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말라 [5-06 Eph 0430, study of.docx](#)

엡 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And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with whom you were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

**하나님의 성령을, the Holy Spirit of God: 강조형**

어떤 때 성령님을 근심케하는 것인가?

주님을 반역할 때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X Ref 이사야 63 : 10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은 성령님과 원수 상태로 들어 가는 것이다.

: 육신의 생각에 빠진다(Sinful desire, unspiritual )

로마서 8 :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 2. 성령을 소멸치 말라

살전 5:19 성령을 소멸치 말며

소멸하다(Quench)는 “불을 끄다” 그래서 NIV 에서는 <sup>19</sup>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훼방할 때 생긴다

(a) ignoring Him, (b) neglecting Him, (c) disobeying Him, or by simply

(d) procrastinating(꾸물거림).—Preacher's Outline and Sermon Bible - Commentary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가장 적절하고 적정한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할 때는 꾸물거려서는 않습니다.

## 3. 성령으로 행하라

갈 5: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것은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속사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행하라

## V.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 1). 기도 :

사도행전 1 : 14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히 기도에 힘쓰니라

### 2). 안수 :

사도행전 19 : 6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 3). 말씀을 들음 :

사도행전 10 : 44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